OPEN ACCESS

빅카인즈를 활용한 5·18 관련 국내 기사 분석 연구*

An Analysis of Domestic Newspaper Articles on 5.18 using the Bigkinds System

박주현 (Juhyeon Park)**
박현지 (Hyunji Park)***
김영범 (Youngbum Gim)****

초 록

이 연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간의 5·18 관련 뉴스데이터를 빈도분석과 네트워크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기별과 지역별 기사량을 분석하여 양적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으며 동시 출현 키워드를 활용한 정부별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정부별 주요 키워드 간의 연결 구조를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시기적으로는 사회적 이슈가 많았던 2019년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적으로는 전라권의 보도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권이 5·18을 바라보는 인식과 정책에 따라 뉴스데이터 내 5·18과 관련된 단어에 차이가 있었다. 5·18 뉴스데이터 분석을 종합한 결과, 5·18이 지역과 상관없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었으나 동시에 5·18에 대한 왜곡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newspaper articles related to May 18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network analysis using news data related to May 18 for about 30 years from 1990 to 2022 at the Korea Press Foundation's Big Kinds. Specifically, quantitative change trends were examined by analyzing the amount of articles by period and region, and the connection structure between major keywords by the regime was explored through network analysis by regime using co-appearance keyword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2019 had the largest amount of coverage, which had many social issues in time, and the Jeolla-do region had the largest amount of coverage in the region. And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there were differences in words related to May 18 in news data according to the perception and policy of the regime toward May 18. As a result of synthesizing the analysis of May 18 news data, it was confirmed that May 18 was becoming a democratic movement over time regardless of region, but at the same time, the distortion of May 18 was not resolved.

키워드: 5·18 민주화운동, 뉴스 분석, 뉴스 빅데이터, 빅카인즈, 텍스트마이닝
May 18 Democratic Uprising, news analysis, news big data, Big Kinds, text mining

---

* 이 논문은 5·18민주화운동기록관의 지원으로 수행된 '5·18 관련 국내신문 자료 분류·목록 및 해제 정리'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park51566@jnu.ac.kr) (제1저자)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hyunjip@jnu.ac.kr) (교신저자)
**** 연세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박사과정(ybgim@yonsei.ac.kr) (공동저자)
■ 논문접수일자 : 2024년 2월 14일 ■ 최초심사일자 : 2024년 2월 28일 ■ 게재확정일자 : 2024년 3월 12일
■ 정보관리학회지, 41(1), 107-132, 2024. http://dx.doi.org/10.3743/KOSIM.2024.41.1.107

※ Copyright © 2024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5·18민주화운동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시민들이 벌인 민주화운동으로 한국의 민주화에 주도적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여러 나라의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이하 UNESCO), 2023).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은 그 가치를 인정받아 2011년 5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형태는 시민의 항쟁 및 가해자들의 처벌과 보상에 관한 문서·사진·영상 등으로 남아있다(국가문화유산포털, 2023).

그러나 1980년 5월, 당시의 5·18민주화운동 현장을 담기 위한 여러 기자의 노력은 군부의 탄압으로 언론 혹은 기사로 보도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후 보도가 되더라도 5·18민주화운동을 바라보는 시각은 진보와 중도, 보수와 같은 언론별 정치 성향으로 인해 다각화되어 있었다(박경표, 2021).

게다가 역사적 평가와 연관됨에 따라 그 명칭은 변천을 거듭하였다. 처음 5·18이 발발했을 때는 계엄사에 의해 '무작폭동', '난동'으로 규정되었다가 정부·여당에 의해 오랫동안 '광주사태'로 불렸으며, 같은 시기에 재야·민주진영에서는 '광주사태', '광주민중항쟁', '광주항쟁', '광주의거' 등의 명칭을 사용했다(최영태, 2015a, 114). 1988년 이후 구성된 '민주화합추진위원회'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이후 이 명칭은 정부의 공식적인 명칭으로 굳혀졌으며, 1990년대 중반 민주·진보진영의 시도로 인해 5·18은 '광주'라는 지역명을 뺀 '5·18민중항쟁' 혹은 '5·18항쟁'으로 불리다가 정부의 공식 명칭 및 각종 법률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으로 바뀌었다(최영태, 2015a, 115). 이처럼 한 가지로 규정되지 못한 용어의 갈등은 5·18을 바라보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객관적인 사실의 보도라는 언론의 기능은 정치·문화·사회적 환경에서 독립적일 수 없어 사회를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의도에 따라 사실은 편집되고 기사화된다(류춘렬, 2015). 또한 언론의 소유구조는 특정 뉴스가 선택과 배제 및 수정되게 한다. 따라서 시대와 지역에 따른 언론사의 5·18 뉴스를 분석하면 5·18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 사회적인 인식과 맥락이 어떤식으로 변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빅카인즈(BIG KINDS)는 신문기사 정보원이자 데이터베이스이며 포털사이트로 빅카인즈를 통해 누구나 국내 주요 언론사의 뉴스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빅카인즈에서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 5·18과 관련된 신문기사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5·18에 대한 인식이 시대별과 지역별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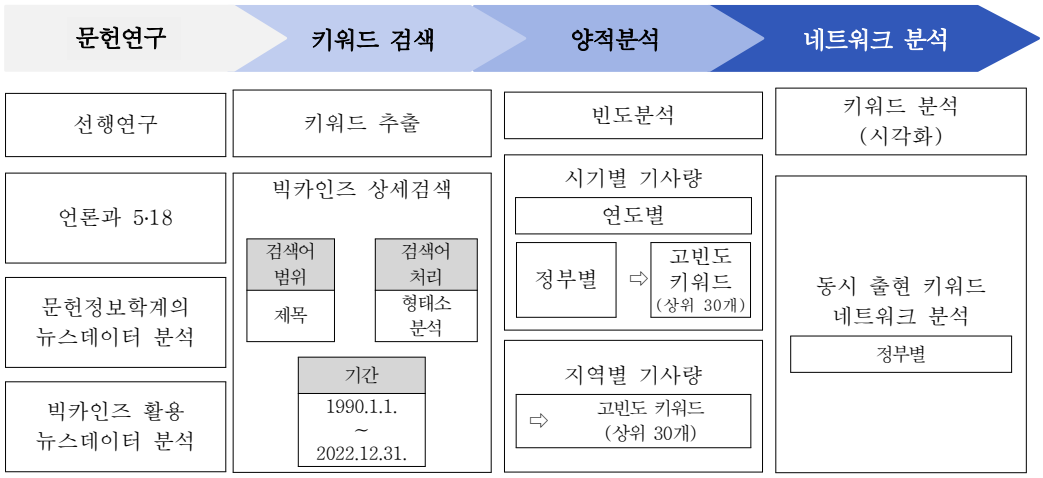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시기적 범위를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최초 기사제공 시점인 199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선정하

였으며 언론 미디어의 범위를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모든 언론사인 전국일간지(11), 경제일간지(8), 지역일간지(28), 방송사(5), 전문지(2)로 선정하였다.[1]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키워드로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 운동', '광주민주항쟁', '5·18', '광주항쟁', '광주학살', '광주사태', '광주민중봉기', '광주시민항쟁' 등을 사용하여 검색을 실시하였다. 또한 검색유형으로는 '뉴스'를, 검색어 범위로는 '제목'을, 검색어 처리 방법으로는 '형태소 분석'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필터링하고 의미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제공하는 1990년부터 2022년까지의 신문기사 자료를 연구의 분석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하여 5·18 관련 내용의 사회적 인식과 흐름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 방법 및 절차는 〈그림 1〉과 같다.

첫째, 5·18과 언론에 관한 선행연구와 빅카인즈 활용을 포함한 뉴스데이터 분석에 관한 연구 조사를 통해 기존 연구들의 동향을 살펴 5·18 관련 뉴스데이터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다.

둘째, 빅카인즈의 신문기사 자료를 대상으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시기별 기사량과 지역별 기사량으로 나누어 분석하였으며, 5·18 신



〈그림 1〉 연구의 방법 및 절차

1) 전국일간지(11): 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 한겨레, 한국일보/경제일간지(8): 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지역일간지(28): 강원도민일보, 강원일보, 경기일보, 경남도민일보, 경남신문, 경상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광주매일신문, 국제신문, 대구일보, 대전일보,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영남일보, 울산매일, 전남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북일보, 제민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중부일보, 충북일보, 충청일보, 충청투데이, 한라일보/방송사(5): KBS, MBC, OBS, SBS, YTN/전문지(2): 디지털타임스, 전자신문

문기사의 시기별 기사량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정부별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고빈도 키워드 분석을 위해 바른(baruen)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여 정부 및 지역별 고빈도 키워드를 분석하였다. 바른 형태소 분석기는 99.6%의 형태소 품사 태깅 정확도와 99.7% 어절 분리/복원 정확도를 바탕으로 정밀한 자연어 처리 성능을 보인다. 형태소 분석 과정 중에는 특정한 의미를 내포하지 않는 특수문자나 길이가 1인 단어는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연구에서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정규표현식을 사용하여 한글 형태소만 남기는 한편 길이가 2 미만인 단어 또한 분석에서 배제하였다.

셋째, 텍스트 데이터에 내재된 다양한 의미와 패턴을 밝히고자 제목에 대해 네트워크 분석을 사용하였다. Python의 networkx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정부별로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네트워크 내에서 파악한 키워드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기반으로 정부별 주요 키워드 간의 상호작용과 연결 구조를 탐색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5·18 관련 선행연구

5·18민주화운동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공헌하였으며 1980년대 이후 필리핀, 태국, 중국, 베트남 등에서 다양한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데 영향을 미쳤다(UNESCO, 2023). 이는 5·18민주화운동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가졌으며, 민주화 움직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여 국제기구의 인정과 평가를 받았다는 중요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국내 신문사들은 1980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의 5·18 광주 민주화운동 당시 5·18을 폭동이나 사태로 명명하는 등 5·18에 대한 잘못된 보도를 하였으며 신문사에 따라 5·18을 가해자 입장에서 옹호하기도 하였다(양혜승, 2020; 조문희, 2020; 최은정 외, 2022). 이는 5·18 당시 언론의 기능과 역할이 올바르게 수행되지 못하였음을 방증한다.

언론 미디어는 이면에 숨은 진실, 부정과 부패, 비리 등에 관하여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의 인식을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역할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세력의 압박과 같은 정치·사회·문화 등의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5·18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으로 언론사에 따라 5·18 기사의 내용이 특정 단어와 자주 언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언론사별로 5·18을 명명하고 묘사하는 단어와 담론이 다른가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엄상빈(2001)은 국내 주요 일간지 4곳(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5·18 관련 기사의 사진들을 보도통제시기, 보도시기, 신군부 홍보시기로 구분하여 사진의 크기, 캡션 등의 양적 분석, 기사 제목과 사진의 성향 등의 질적분석 및 현지 특파 사진기사의 인터뷰를 통한 방법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허현주(2002)는 13개의 일간지(대한매일,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강원일보, 대전일보, 대구 매일, 부산일보, 전남일보, 전북신문, 충청일보)를 분석 대상으로 1980

년부터 2000년까지 5·18 관련 신문사진의 변화를 연구하였다. 사진의 양적 분석, 면별분석, 내용분석 등을 실시하였고, 정치 시기별로 나누어 분석하여 5·18과 관련해 각 정부의 시기마다 권력과 언론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박선희(2002)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5·18 특별법 관련 사설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고 김대원(2006)은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의 언론이 '5·18 행사'를 바라본 지역별 관점 및 보도 성향을 시대별, 매체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그리고 박진우(2022)는 대학신문의 5·18을 둘러싼 담론과 재현의 양상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자료에 접근이 가능한 24개의 대학신문을 대상으로 학원 자율화 이전 시기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양혜승(2020)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광주일보의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5·18 관련 보도를 토픽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주제별 신문사별로 분석하였고 최은정 외(2022)는 198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의 사설의 양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5·18 선행연구는 진보나 보수, 중앙과 지역을 대표하는 소수의 신문사를 대상으로 5·18에 대한 담론이 시대와 언론사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를 빈도분석과 내용 분석하였다.

2.2 기사 분석 연구

문헌정보학계에서는 기사 내용을 분석한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김진묵(2019)은 한국과 체코와의 분야별 관계 변화 추이를 고찰하기 위해 네이버 뉴스 검색을 통해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체코에 관하여 보도된 뉴스 기사 총 1,200건을 4개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조찬식(2012)은 은평구립도서관의 홍보 실태를 파악하고자 2010년도 신문기사를 기사유형, 기사종류, 기사성격, 기사내용 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김지현(2018)은 도서관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하고자 2000년부터 2017년까지 4개 신문사에서 보도된 3,065개의 신문기사를 시계열 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김성덕과 안유리, 박지홍(2021)은 코로나19에 직면한 한국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분석하고자 국내 주요 뉴스기사에서 인물 및 핵심어 정보를 활용하여 동시출현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내용 기반 국회의원 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토픽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주제별 키워드 중심 국회의원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수상(2017a)은 다양한 사회적 담론에 어떤 주제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2016년부터 2017년 6월까지 2개의 신문사 기사를 주제로 범주화하였으며, 이수상(2017b)은 경주지진에 대한 사회적 이슈를 파악하고자 2016년 9월 12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지역신문과 전국의 종합신문, 진보신문과 보수신문으로 구분한 6개의 신문사의 기사 2,390건을 토픽모델링 분석을 실시하여 신문사 유형별 토픽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한승희(2019)는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을 분석하고자 1990년부터 2018년까지 도서관을 주제로 한 뉴스 기사 37,818건을 대상으로 양적 분석과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기사의 제목에 '도

서관'을 포함하고 있는 기사를 수집하고 이를 시기별, 주제별, 언론사 유형별 기준에 따라 언론 보도의 양적 변화 추이를 분석한 후, 키워드 빈도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시기별 보도 내용의 변화 추이와 기사에 내재된 언론 프레임을 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계에서 수행된 기사 분석 연구는 언론기사가 사회적 담론을 포함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키워드 빈도분석, 동시출현 분석, 네트워크 분석, 토픽분석 등의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설명하거나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3 빅카인즈를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

전통적인 관점에서 신문기사는 연구분석에 적합한 대상이 아니었다(이정락 외, 2022). 자연어라는 비정형의 데이터로 이루어진 신문기사를 분석하기 위해서 수작업으로 개별 단어 혹은 형태소에 대해 빈도를 분석하거나 경향성을 분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아날로그 형식으로 존재하는 뉴스기사에 대한 분석에 충분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또한 지난한 일이었다. 그러나 기술혁신에 따른 자연어 처리 및 분석 프로그램의 급속한 발전과 빅데이터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구축 및 서비스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신문기사를 성공적으로 연구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국내에서는 신문기사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으로 빅카인즈가 2016년에 서비스되었다. 빅카인즈는 종합일간지, 경제지, 지역일간지, 방송사 등을 포함하여 1990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54개 매체에서 약 7천만 건의 국내 뉴스 콘텐츠를 빅데이터화하고 비정형 텍스트를 분석 가능한 정형화된 데이터로 바꾸어 사회현상을 분석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빅카인즈, 2024). 이에 국내에서도 빅카인즈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 이루어졌다(김미영, 2021; 이경민, 2019; 이긍희, 2017; 이세원, 2021; 이현지 외, 2019; 한승희, 2018; 2019). 그러나 5·18 관련 단어가 제목에 포함된 뉴스를 대상으로 연도별, 정부별, 지역별 분석을 실시한 선행연구는 없었다. 특히 각 정부 시기별 뉴스는 그 당시의 주요 동향 및 담론을 포함하고 있어(한승희, 2018) 시대별 인식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자료이지만 이를 대상으로 언어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었다. 이는 연도별, 정부별, 지역별 빈도분석과 정부별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5·18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의미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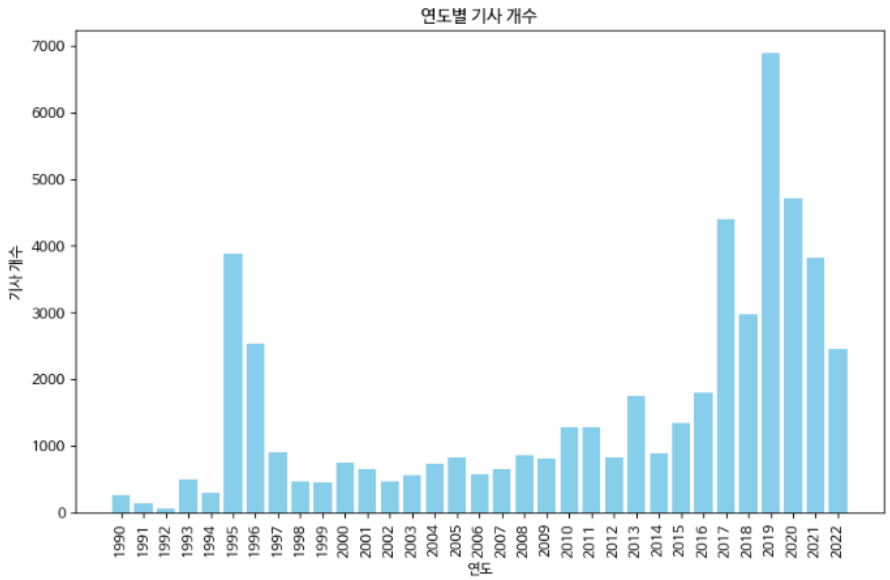
3. 연구 결과

3.1 빈도분석 결과

3.1.1 시기별 빈도분석

빅카인즈에서 제공되는 1990~2022년의 5·18 관련 뉴스데이터를 연도별, 정부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후 정부별에서는 고빈도 키워드 상위 30개를 살펴보았다. 연도별 빈도분석 결과는 〈그림 2〉와 같다.

2019년이 6,882건의 기사로 언론 보도가 가장 빈번했으며, 다음으로 2020년(4,705건), 2017년



〈그림 2〉 5·18 관련 뉴스데이터 연도별 빈도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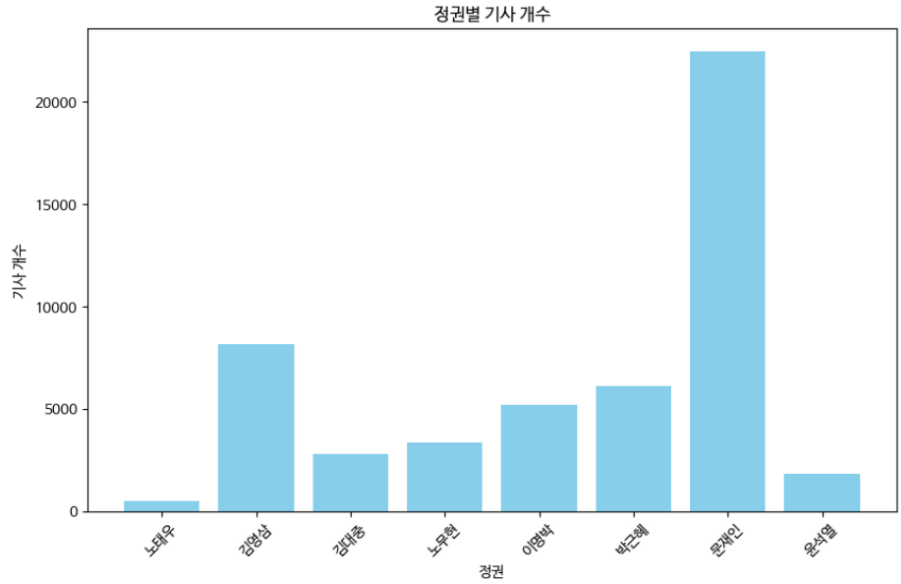
(4,399건), 1995년(3,876건), 2021년(3,821건), 1996년(2,531건) 등의 순으로 언론 보도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5·18 관련 가장 많은 기사를 찾을 수 있던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의해 열린 지만원 초청 5·18공청회가 있었으며, 당시 5월 유족과 조선의열단 등의 반발, 정치권의 우려와 비판 등으로 파문이 있었다(김인정, 2019). 또한 같은 해 12월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해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이 있었다. 그 이후 2020년, 2021년 등은 5·18 진상규명과 관련해 많은 보도가 있었으며, 1995년과 1996년에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기소되고 선고를 받는 등의 사건이 있어 높은 기사 빈도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특정 해에 5·18 관련 기사가 많이 보도가 된 것은 그 해에 5·18 관련 특정 사건이 정치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이슈가 되어 많은 기사가 생산되고 소비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2022년까지 5·18 관련 뉴스데이터의 정부별 빈도분석을 위해 노태우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대통령 재임 기간을 기준으로 범주를 구분하였다. 단, 노태우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분석 결과는 재임 기간이 온전하게 분석 기간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키워드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정부별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과 같이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사량이 22,4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8,170건), 박근혜 정부(6,117건), 이명박 정부(5,196건), 노무현 정부(3,368건), 김대중 정부(2,802건)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3〉 5·18 관련 뉴스데이터 정부별 빈도분석 결과

정부별 5·18 관련 뉴스데이터 상위 30개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김영삼 정부에서는 '특별법'이 8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수사'(810건), '공판'(789건), '검찰'(590건), '제정'(43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삼 정부 시기에는 5·18 관련 특별법의 제정이 있음과 동시에 12.12 사건과 5·18 관련자 처벌에 대해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에 따라 법적 결정을 내리는 용어들이 나타났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광주'가 3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항쟁'(182건), '민주'(164건), '주년'(157건), '묘지'(15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광주'가 46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묘지'(310건), '민주'(263건), '참배'(243건), '항쟁'(23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5·18을 기념하고 예우하는 단어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으며, 5·18이 민주화운동과 항쟁으로 나뉘어 명명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광주'가 67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주'(559건), '주년'(555건), '운동'(373건), '묘지'(277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광주'가 8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주'(844건), '왜곡'(605건), '기념식'(558건), '운동'(54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광주'가 2,4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주'(2,176건), '망언'(1,932건), '운동'(1,597건), '전두환'(1,49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광주'라는 키워드가 많이 등장한 것은 단순히 모든 검색어에 해당 키워드가 포함되어 도출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검색어에 포함될 만큼 5·18에 대한 지역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 '운동'과 같은 키워드도 이와 유사하게 5·18의 정체성이 민주화운동이라

는 담론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주년', '기념식', '묘지' 등과 같은 키워드는 5·18을 기념하는 주요 행사와 연관된 기사에서 발견되는 키워드로 5·18의 희생자를 기리고 추모하는 행사 및 활동이 꾸준히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 등장한 '망언', '전두환', '진상' 등과 같은 단어들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간으로 인해 생긴 파문, 5·18 관련 왜곡 문제 등이 불거지며 발생하는 이슈에 대한 것으로 대체로 부정적인 의미가 돋보이며 이는 해당 이슈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와 인식을 보여준다.

5·18 관련 뉴스데이터 정부별 상위 30개의 고빈도 키워드 분석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3.1.2 지역별 빈도분석

빅카인즈의 1990~2022년의 5·18 관련 뉴스데이터 지역별 기사량 빈도분석 결과, 전라권 17,363건, 경상권 1,475건, 수도권 556건, 강원권 377건, 충청권 218건 순으로 지역별 기사량이 나타났다. 5·18의 진원지인 광주가 전라권에 속해있으므로 지역에서의 관련 사건에 대한 관심이 집중된 만큼 많은 보도량을 보였으며,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언급하고 있듯 5·18이 지역 간의 정치적 이해 관계 등에 따라 보도량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빅카인즈의 1990~2022년의 5·18 관련 뉴스데이터 지역별 기사량 빈도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에 제시된 신문사 지역별 기사량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지역별 고빈도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여 도출한 지역별 상위 30개의 고빈도 키워드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지역에서 검색어와 직접적으로 연관있는 '광주', '민주', '운동'과 같은 키워드들이 공통적으로 최상위 고빈도 키워드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민주', '운동', '광주'에 이어 '특별법'(28건), '대통령'(28건), '기념식'(28건) 등의 순을 보였고 충청권의 고빈도 키워드는 '민주', '운동', '광주'에 이어 '대통령'(21건), '주년'(21건), '정신'(20건) 등의 순을 보였으며, 전라권의 고빈도 키워드는 1,546건으로 '광주'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민주'(1,464건), '주년'(1,336건), '묘지'(951건) 등의 순을 보였다. 강원권의 경우 48건으로 '민주'라는 키워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운동'(38건), '주년'(24건), '항쟁'(21건) 등의 순을, 경상권의 경우 '광주', '민주', '운동'에 이어 '항쟁'(76건), '기념식'(75건), '특별법'(7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3〉의 결과는 광주에 국립5·18민주묘지가 있고 매년 행사가 열리기 때문에 전라권 신문사에서 '주년', '묘지', '참배'가 고빈도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지역을 떠나 5·18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담론으로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2 정권별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연결중심성 값이 기준(0.05)을 초과하는 키워드를 주요 단어로 삼고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정부별 주요 단어 상위 30개 단어와 연결중심성 값은 〈표 4〉와 같다. 이후 정부별로 도출된 주요 키워드의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고

〈표 1〉 5·18 관련 뉴스데이터 정부별 상위 30개 고빈도 키워드 분석 결과[1)]

구분 / 순위	김영삼 정부 (1993~1998)		김대중 정부 (1998~2003)		노무현 정부 (2003~2008)		이명박 정부 (2008~2013)		박근혜 정부 (2013~2017)		문재인 정부 (2017~2022)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키워드	빈도
1	특별법	833	광주	347	광주	462	광주	673	광주	806	광주	2484
2	수사	810	항쟁	182	묘지	310	민주	559	민주	744	민주	2176
3	공판	789	민주	164	민주	263	주년	555	왜곡	605	망언	1932
4	검찰	590	주년	157	참배	243	운동	373	기념식	559	운동	1597
5	제정	434	묘지	153	항쟁	235	묘지	277	운동	548	전두환	1498
6	사건	418	유공자	135	주년	198	정신	263	행진곡	400	주년	1427
7	광주	406	사진	130	공개	146	기념식	257	주년	313	진상	1415
8	기소	372	참배	124	운동	136	참배	241	역사	296	한국당	1339
9	조사	371	행사	114	기념식	130	교과서	222	참배	255	대통령	1240
10	촉구	365	묘역	103	묘역	124	항쟁	205	기념곡	228	왜곡	1183
11	관련	320	운동	94	행사	123	행사	190	정신	216	규명	1099
12	항소심	240	기념	91	정신	111	역사	182	행사	204	조사	984
13	오늘	238	정신	91	기록	104	등재	179	지정	192	기념식	938
14	소환	235	기념식	86	대통령	103	단체	170	참석	188	정신	862
15	대통령	229	시민	72	기념	97	기록물	169	대통령	168	의원	843
16	결정	226	민중	66	민중	97	세계	166	묘지	167	단체	730
17	선고	225	보상금	63	유공자	84	묘역	156	시민	158	징계	662
18	관련자	213	대통령	62	진압	83	기념	146	단체	153	역사	645
19	시위	209	암매장	57	참석	78	대통령	135	민주 묘지	149	계엄군	636
20	교수	203	기념 행사	56	수사	75	사진	134	논란	143	유공자	622
21	특별	201	재단	54	추모	74	유네스코	131	일베	140	진실	621
22	중계	193	추모	52	시위	72	유산	131	사진	139	시민	616
23	재판	192	국가	51	영화	71	재단	130	지만원	130	참배	616
24	성명	181	단체	51	재단	69	민주 묘지	126	북한군	125	국회	604
25	처벌	176	의원	51	오늘	65	시민	125	항쟁	122	헬기	589
26	민주	167	오늘	48	대회	61	추모	111	기념	118	사과	569
27	처리	161	전국	46	평화	61	유공자	109	국민	116	특별법	547
28	규명	160	참석	45	단체	61	기록	106	교과서	116	사격	544
29	헌재	158	전야제	45	조사	59	이사장	93	헬기	116	공개	533
30	지상	145	대회	45	전남	58	기념 행사	89	오늘	115	폄훼	527

1) 데이터가 온전치 못한 노태우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키워드 분석은 제외함

〈표 2〉 5·18 관련 뉴스데이터 신문사 지역별 기사량 분석 결과

지역	신문사	신문사별 빈도	지역별 빈도
전라권	전남일보	5,798	17,363
	무등일보	3,924	
	광주매일신문	3,400	
	광주일보	3,213	
	전북일보	553	
	전북도민일보	375	
	한라일보	100	
경상권	부산일보	753	1,475
	영남일보	321	
	경남도민일보	115	
	울산매일	89	
	경상일보	80	
	경남신문	71	
	대구일보	46	
수도권	경일일보	444	556
	경기일보	112	
강원권	강원도민일보	311	377
	강원일보	66	
충청권	대전일보	89	218
	충청일보	78	
	충북일보	51	

〈표 3〉 5·18 관련 뉴스데이터 지역별 상위 30개 고빈도 키워드 분석 결과

구분 / 순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경상권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	민주	98	민주	50	광주	1,546	민주	48	광주	147
2	운동	74	운동	28	민주	1,464	운동	38	민주	131
3	광주	64	광주	23	주년	1,336	주년	24	운동	98
4	특별법	28	대통령	21	묘지	951	항쟁	21	항쟁	76
5	대통령	28	주년	21	왜곡	856	대통령	21	기념식	75
6	기념식	28	정신	20	운동	708	의원	21	특별법	74
7	전두환	26	기념식	18	진상	671	김진태	21	대통령	64
8	정신	26	의원	16	참배	632	광주	20	공판	50
9	제정	23	망언	16	정신	613	기념식	17	망언	49
10	망언	23	참배	11	규명	593	사건	17	사진	44
11	의원	21	여야	11	역사	527	관련	15	의원	43
12	진상	19	폄훼	11	행사	516	촉구	14	정신	42
13	한국당	19	묘역	9	기념식	477	뉴스	14	수사	39
14	특별	18	묘지	9	단체	459	특별법	14	제정	38

구분 / 순위	수도권		충청권		전라권		강원권		경상권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단어	빈도
15	참배	18	항쟁	9	기념	453	관련자	13	주년	38
16	주년	18	한국당	9	유공자	441	묘역	13	전두환	36
17	묘역	17	충남 교육청	9	항쟁	430	공판	13	진상	35
18	조사	17	논란	8	시민	422	수사	12	한국당	35
19	참석	17	성일종	8	재단	384	오늘	12	조사	33
20	왜곡	17	행사	7	조사	377	왜곡	12	대구	33
21	항쟁	16	헌법	7	전국	364	폄훼	12	규명	32
22	계승	16	규탄	7	기념 재단	343	특별	11	오늘	32
23	유공자	15	왜곡	7	사설	337	기념	11	논란	32
24	묘지	14	전두환	6	진실	299	정신	11	행사	31
25	여야	14	역사	6	전두환	295	거부	11	촉구	31
26	이재명	13	단체	6	특별법	292	춘천	11	묘역	30
27	민주당	13	진실	6	세계	290	내일	10	사건	30
28	시민	12	국립	6	기념 행사	269	시위	10	참배	30
29	규명	12	기념	6	추모	260	기소	10	검찰	29
30	논란	12	참석	5	대통령	255	역사	10	기소	29

〈표 4〉 정부별 주요 단어 상위 30개 및 연결중심성 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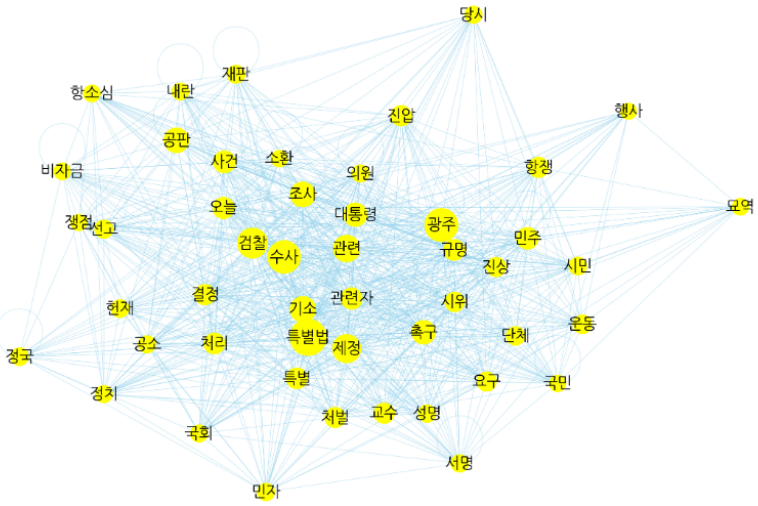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	특별법	0.248	광주	0.259	광주	0.28	광주	0.262	광주	0.309	광주	0.299
2	광주	0.206	항쟁	0.138	민주	0.167	민주	0.233	민주	0.272	민주	0.285
3	수사	0.2	민주	0.13	묘지	0.16	주년	0.149	운동	0.189	운동	0.214
4	검찰	0.17	묘지	0.113	항쟁	0.142	운동	0.14	왜곡	0.158	망언	0.167
5	제정	0.152	사진	0.108	참배	0.104	묘지	0.135	기념식	0.116	주년	0.162
6	관련	0.134	주년	0.097	주년	0.088	항쟁	0.11	역사	0.115	전두환	0.159
7	기소	0.123	참배	0.084	운동	0.087	정신	0.103	묘지	0.115	왜곡	0.138
8	조사	0.118	기념	0.082	행사	0.085	단체	0.087	행진곡	0.092	진상	0.137
9	공판	0.117	묘역	0.079	묘역	0.085	기념	0.081	시민	0.092	한국당	0.131
10	촉구	0.107	운동	0.074	기념	0.083	행사	0.077	정신	0.091	정신	0.12
11	대통령	0.105	시민	0.071	정신	0.067	역사	0.076	주년	0.091	시민	0.12
12	사건	0.092	행사	0.071	유공자	0.066	사진	0.075	참배	0.088	규명	0.119
13	민주	0.09	정신	0.068	공개	0.064	참배	0.073	단체	0.088	역사	0.115
14	오늘	0.087	유공자	0.065	민중	0.059	시민	0.071	행사	0.085	단체	0.114
15	관련자	0.086	단체	0.057	단체	0.058	재단	0.063	논란	0.082	조사	0.114
16	규명	0.084	전남	0.054	재단	0.055	기념식	0.06	항쟁	0.076	의원	0.111
17	특별	0.084			전남	0.054	묘역	0.056	재단	0.069	대통령	0.109
18	처리	0.083			대통령	0.053	문화	0.055	기념	0.068	유공자	0.102

구분	김영삼 정부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19	진압	0.08			관련	0.053	세계	0.055	참석	0.067	논란	0.102
20	결정	0.08			기념식	0.052	기록물	0.053	정부	0.063	기념식	0.101
21	처벌	0.079					민중	0.052	광주시	0.063	진실	0.093
22	항쟁	0.079					유공자	0.052	대통령	0.061	묘지	0.093
23	교수	0.078							사진	0.06	당시	0.087
24	시위	0.074							기념곡	0.056	공개	0.085
25	진상	0.072							기념재단	0.055	폄훼	0.083
26	요구	0.071							오늘	0.055	국회	0.083
27	운동	0.067							촉구	0.054	참배	0.082
28	단체	0.067							의원	0.053	계엄군	0.082
29	선고	0.065							전두환	0.052	사과	0.08
30	재판	0.063							묘역	0.052	관련	0.077

시각화하였다. 이전 과정과 동일하게 데이터가 온전하지 않은 노태우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분석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은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정부별 네트워크 통합분석 결과이다.

3.2.1김영삼 정부(1993~1998년)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역사바로세우기 운동으로 군부 정부에서 발생한 수많은 역사적 사건에 대해 전면 재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때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 처벌 등이 이루어졌다. 김영삼 정부시기에 발생한 뉴스데이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다.



〈그림 4〉 김영삼 정부(1993~1998)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노드의 크기가 노드의 중심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그림 4〉에서 '특별법', '수사', '공판' '검찰' 등의 키워드가 높은 중심성을 지니고 네트워크 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이 시기의 가장 핵심 키워드인 '특별법'이 '제정'되어 노태우・전두환 전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5・18의 진상규명 및 처벌이 국회 차원에서 진행된 것과 연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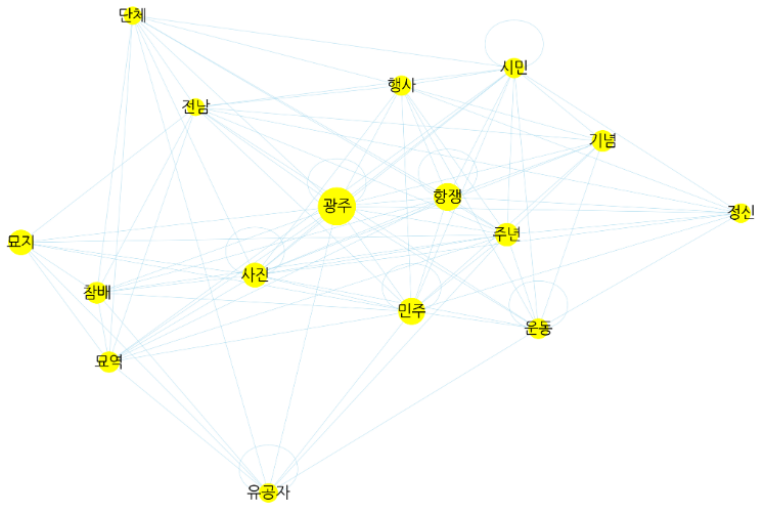
3.2.2 김대중 정부(1998~2003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12 군사 반란으로 지휘권을 장악한 신군부의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사건'을 비롯하여 5・18과 관련성이 높다(최영태, 2015b). 1997년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이후 등장한 김대중 정부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5・18을 기념하는 행사를 확대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5・18이 20주년을 맞은 2000년에 현직 대통령 중 처음으로 5・18 기념식에 참석하여 민주주의를 성취한 광주 정신으로 5・18을 평가하였다(김성희, 2021). 김대중 정부시기에 발생한 뉴스데이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5〉와 같다.

〈그림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광주', '항쟁', '민주', '주년' 등이 중심 키워드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화하는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이에 '광주'에서 일어난 5・18 정신을 기리기 위한 '묘지', '묘역', '참배', '행사'와 같은 단어들이 주요하게 다루어졌다. 더불어 이 시기 5・18과 관련하여 출현한 키워드가 적은 이유로 당시 외환위기, 남북관계, 정치적 대립 등 국내외에서 이슈들이 많았기에 상대적으로 5・18 관련 보도가 적었을 가능성을 들 수 있다.

3.2.3 노무현 정부(2003~2008년)

대통령 재임기간 동안 5・18 기념식에 매년



〈그림 5〉 김대중 정부(1998~2003)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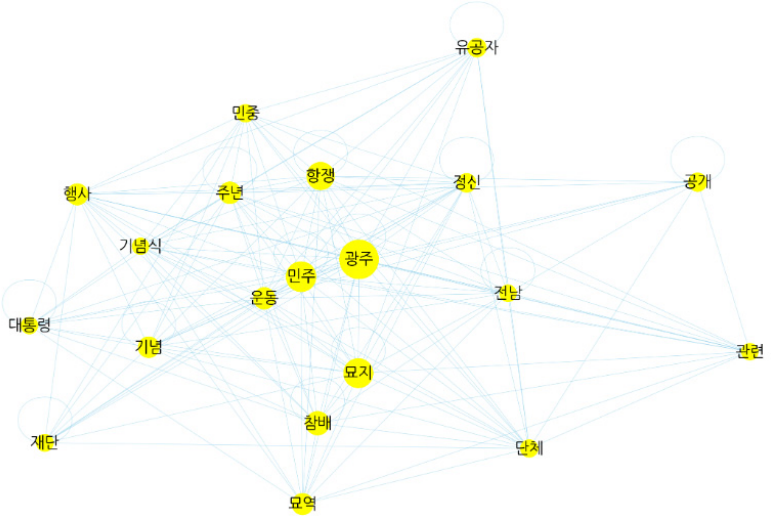
참석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8에 감추어진 광주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하였으며, 5·18 민주화운동이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다(대통령 비서실, 2004). 노무현 정부시기에 발생한 뉴스데이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시기에는 '광주', '민주', '주년', '기념', '행사', '묘지' 등과 같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중심 단어들을 살펴보면 앞의 정부와 결이 유사하게 5·18을 기림으로써 5·18묘지 '참배', '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표하고자 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시기에도 동시 출현 키워드가 비교적 단순한 이유는 김대중 정부에 비하면 적은 폭으로 보도량은 증가하였으나 이전 정부와 유사하게 4대 개혁 입법, 대북정책 등과 같은 정책의 실행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강한 대립이 일어나는 시기였기 때문에 5·18에 대해 보도를 집중하지 않은 점 혹은 5·18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노무현 정부의 분위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언론에 다루어질 필요가 없었음을 예상해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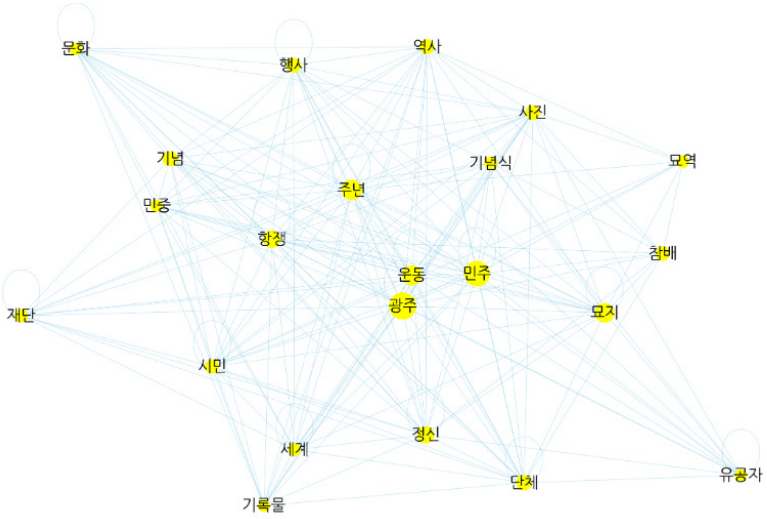
3.2.4 이명박 정부(2008~2013년)

5·18을 대하는 이명박 정부의 태도는 이전 정부와는 차이가 있었다. 5·18 기념식에 재임기간 매년 참석한 이전 정부에 반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08년에만 기념식을 참석하였으며, 5·18 기념식에 제창하던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 정부 시절 선택적인 합창으로 변경되었다(김성희, 2021). 이명박 정부시기에 발생한 뉴스데이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그림 7〉에서와 같이 '광주', '민주', '운동', '주년'과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주로 '기념식', '기념', '행사', '묘지', '묘역', '참배' 등의 5·18



〈그림 6〉 노무현 정부(2003~2008)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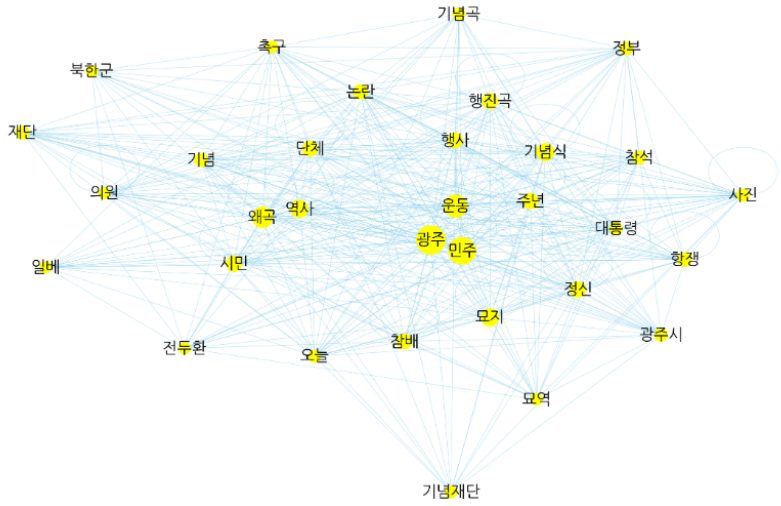
〈그림 7〉 이명박 정부(2008~2013)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을 기리는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다. 이전 정부와 유사한 키워드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개정된 학교 교과서 마련 기준에는 5·18의 역사적 의의와 내용이 축소(임선화, 2018)되는 등 정부의 교체가 이루어진 이명박 정부에서는 5·18에 대해 다르게 대응하고 있었다(김성희, 2021). 또한 '기록물'이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5·18 기록물이 2011년에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언론통제 및 검열을 통해 언론을 장악하였는데(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이를 통해 당시 5·18 관련 보도 내용의 제한으로 키워드가 단순화되는 등의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3.2.5 박근혜 정부(2013~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전 정부와 같이 취임 첫해인 2013년 5·18 기념식에 한 차례 참석하였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5·18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기념식에서 5·18의 희생자에 대한 경의와 투쟁을 상징화하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식순에서 제외시키는 당시 국가보훈처의 행동과 한 차례의 기념식 참석은 박근혜 정부의 5·18에 대한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박근혜 정부시기에 발생한 뉴스데이터의 주요 키워드에 대한 동시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그림 8〉에서와 같이 '광주', '민주', '운동', '주년'와 같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여 오른쪽 상단에는 '행사', '행진곡', '기념식', '기념곡' 등의 5·18의 기념 행사와 관련된 단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와는 대조적으로 좌측에서는 '역사', '왜곡', '묘역', '일베', '북한군', '전두환' 등의 단어들이 위치함으로써 당시 5·18에 대한 왜곡이 빈번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역사', '왜곡' 등은 각각 4위, 6위의 연결중심성을 보이며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당시 상당수의 뉴스기사에서 '역사'와 '왜곡'이 함께 다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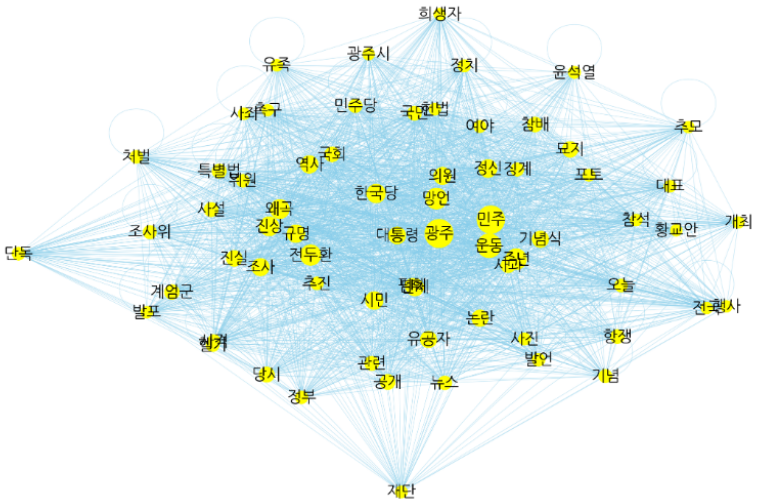
〈그림 8〉 박근혜 정부(2013~2017)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어졌음을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때에는 5·18에 북한국이 개입되었다는 '북한군 광주 침투설'부터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라는 인터넷 커뮤니티의 몇몇 회원들이 5·18 희생자들을 헐뜯어 유족들로부터 명예훼손죄로 고소된 사건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이 시기에는 5·18에 대한 왜곡 논란이 기사에 빈번히 담겼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6 문재인 정부(2017~2022년)

문재인 정부는 5·18의 민주화 정신에 존경을 표하며 재임 기간 중 세 차례의 기념식에 참석하였다.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에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참배하였는데, 전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난 뒤에도 참배를 나선 것은 이전에는 없는 행적이며 의미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유연재, 2023). 특히 이 시기에는 5·18 관련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5·18 관련 보도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그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주', '민주', '운동', '주년', '대통령' 등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진상', '규명', '왜곡', '진실', '조사'와 같은 키워드들이 함께 자주 등장하여 주로 왜곡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데 관련 있는 단어들이 위치하고 있었다. 특히 '계엄군', '발포', '헬기', '사격' 또한 진상규명 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이고 있어 헬기사격, 계엄군 발포 등이 진실 공방과 함께 주요하게 다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두환'이라는 단어 좌측 하단에 보이는 '계엄군', '사격', '발포' 등은 5·18 당시 헬기 기총소사 등 발포 명령에 대해 부인한 내용이 담겨있는 전두환 회고록 1권과 연결된다(김정대, 2022; 심영의, 2020). 또한 문재인 정부 때 구성된 '5·18민주화운동 헬기 사격 및 전투기 대기 관련 국방부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와도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망언', '의원', '한국당', '국회'는 당시 지만원을 초청한 한국당의 5·18 공청회와 연



〈그림 9〉 문재인 정부(2017~2022) 5·18 관련 뉴스데이터 동시 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관성을 찾을 수 있다.

3.2.7 정부별 분석 내용 종합

김영삼 정부는 군부 내 정치군인을 척결하는 등 과거사 청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때 5·18 관련 특별법의 제정과 함께 관련자들에 대해 수사와 재판, 처벌 등이 이루어졌다. 따라서 대부분 이와 관련된 단어들이 중심으로 연결되어 큰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김영삼 정부 말년인 1997년에 5·18이 국가 기념일로 제정됨에 따라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운동으로서 5·18을 기리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18 민주화운동이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민주화운동으로서의 5·18에 경의를 표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에 이 시기에는 '광주', '민주', '주년', '기념', '행사', '묘지', '묘역', '참배' 등과 같은 단어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정권이 교체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5·18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첫해에만 기념식을 참석하였으며, 이 시기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에 대한 이슈, 보수단체의 5·18 관련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반대, 학교 교과서의 5·18에 대한 내용 축소(이명박 정부) 및 국정교과서 논란(박근혜 정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명박 정부에서는 5·18 키워드가 단순화되었으며 '기록물', '역사' 등의 단어들이 등장하였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념식', '행사', '주년', '행사', '행진곡' 등의 5·18 기념 행사와 관련된 단어와 '역사', '왜곡', '묘역', '일베', '북한군', '전두환' 등의 단어들이 동시에 위치함으로써 당시 5·18에 대한 왜곡이 사회적 논란이 되었음

을 보여준다.

5·18 관련 보도량이 가장 많았던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5·18 관련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5·18에 관해 끊임없는 왜곡이 제기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5·18 왜곡에 대한 이슈는 고조되었다. 그에 따라 수많은 기사가 생산되고 소비되었으며, 동시 출현 키워드에서도 '기념식', '묘지', '참배', '추모', '행사', '개최', '참석' 등이 우측 상단에, '규명', '진상', '조사', '진실' 등이 좌측에, '전두환'이라는 단어 좌측으로 '계엄군', '사격', '발포' 등과 '망언', '의원', '한국당', '국회' 등 당시 이슈가 되었던 사건과 연관된 단어들이 위치하였다.

4.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5·18 관련 신문 보도 동향 파악을 목적으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뉴스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빅카인즈에서 1990년대부터 2022년까지의 5·18 관련 뉴스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5·18과 언론의 관계를 다루는 선행연구와 문헌정보학계의 뉴스데이터 분석 연구, 빅카인즈를 활용한 신문기사 분석 연구를 살펴보고, 5·18 관련 보도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적 분석과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보도량 및 내용을 분석하였다. 빈도분석으로는 시기별과 지역별 기사량을 분석하였다. 먼저 시기별 기사량의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 정부별 빈도분석을 실시한 이후 정부별과 지역별 기사량에서는 상위 30개의 고빈도 키워드를 추가로 분석하여 각 분석단위별 주요 키워드가 내포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또한 동시출현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정부별 5·18 관련 보도의 내용과 키워드 간 상호작용 연결 구조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기별 빈도분석에서 연도별 기사량 분석 결과, 문재인 정부 재임 기간인 2019년의 기사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18과 관련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있을 때 기사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별 기사량 분석 결과, 데이터 부족으로 분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태우 정부와 윤석열 정부를 제외하고, 문재인 정부에서의 기사량이 22,4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영삼 정부(8,170건), 박근혜 정부(6,117건), 이명박 정부(5,196건), 노무현 정부(3,368건), 김대중 정부(2,802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5·18과 관련된 사회적 이슈가 많이 발생하면 기사량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정부별 5·18 관련 뉴스데이터 상위 30개의 키워드 빈도분석 결과, 종합적으로 5·18이 발생한 장소인 '광주'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상위권에 위치한 '민주', '운동'은 5·18에 대한 담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민주주의 운동으로 정착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자주 등장한 '망언', '전두환', '진상' 등과 같은 단어들은 전두환 회고록의 출간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논의와 5·18 관련 왜곡 논쟁으로 발생한 이슈에 대한 것으로 5·18에 대한 사실과 왜곡이 여전히 논쟁거리임을 보여준다.

지역별 빈도분석 결과, 전라권 17,363건, 경상권 1,475건, 수도권 556건, 강원권 377건, 충청권 218건 순으로 기사량이 많게 나타났다. 이는 5·18의 진원지인 광주가 전라권이므로 전

라권에서 5·18과 관련한 기사가 많았다고 추정할 수 있다.

지역별 기사에 따른 상위 30개 고빈도 키워드 분석 결과, 주로 5·18 사건 발생지인 '광주'라는 단어와 5·18 '운동', '민주', '항쟁' 등의 단어가 자주 나타났다. 5·18 관련 보도량이 전라권에 비해 월등히 적은 강원권과 충청권에서는 '항쟁'이라는 단어가 상위 5위 안에 있었는데, 이는 지역을 떠나 5·18이 북한이나 좌파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의 폭동이나 사태가 아니라 시민들이 권위주의의 억압과 국가폭력에 대항하여 민주화를 외친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정권별 키워드 동시 출현 네트워크 분석 결과, 정부별로 5·18에 대한 기조와 사회 분위기에 따라 주요 키워드가 다르게 발생하고 그에 따른 키워드 간 다른 연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김영삼 정부는 5·18 관련 법 제정과 함께 이들에 대한 수사 및 군부 내 정치군인을 척결하는 등의 행적을 보여주어 이와 관련한 용어들이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5·18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5·18을 기리는 단어들이 중심 키워드로 나타났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에서는 5·18에 대한 왜곡과 관련한 단어인 '역사', '왜곡', '묘역', '일베', '북한군', '전두환'이 동시에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5·18 관련 진상규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으나 5·18에 대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가 많았으며 그로 인해 많은 기사와 다양한 키워드가 등장하였다.

이 연구는 빅카인즈에서 1990년부터 2022년까지 약 30년의 뉴스데이터를 활용해 빈도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신문기사에서 드러나는 5·18에 대한 보도 경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 이 연구가 활용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5·18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들에 의해 언론의 성향별 기사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소비자가 어떻게 인식하며 어떠한 판단을 내리는지 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언론 미디어가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5·18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5·18의 발생 직후부터 1990년 이전까지의 데이터 확보가 원활하지 못한 점이 본 연구의 한계로 여겨, 1980년 5월 18일부터 발행한 언론사별 뉴스데이터를 추가로 수집 및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 활용한 빅카인즈의 뉴스데이터는 언론사별로 뉴스를 제공한 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시대별이나 지역별로 5·18에 대한 관점을 분석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언론사별로 1980년 5월 18일부터 발행한 뉴스의 원데이터를 확보하여 분석할 수 있다면 더욱 정밀한 양질의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국가문화유산포털 (2023. 9. 16.). 5·18 민주화운동기록물.
출처: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MemHeritage/MemHeritage_09.jsp&page&pageNo=5_4_2_0

김대원 (2006). '5.18' 보도와 지역성: 부산, 대구, 광주 지역언론의 '5.18' 5, 15, 25주기 보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저널리즘 전공.

김미영 (2021). 오키나와와 관련한 국내 언론의 보도 경향: 1994년~2020년 빅카인즈(BIGkinds) 분석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74, 299-327. https://doi.org/10.16979/jmak..74.202111.299

김성덕, 안유리, 박지홍 (2021). 코로나19에 관한 국회의원 의정활동 네트워크 분석: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5(2), 91-110. https://doi.org/10.4275/KSLIS.2021.55.2.091

김성희 (2021. 5. 17.). [5·18민주화운동 41주년] 5·18기념식으로 본 역대 대통령 메시지는?. 무등일보. 출처: http://m.mdilbo.com/detail/NezemK/647342

김인정 (2019. 2. 8.). 자유한국당 5.18망언 파문 1 - 지만원 5.18 공청회 강행. 광주문화방송.
출처: https://kjmbc.co.kr/article/IlKl07rkJujIK

김정대 (2022. 9. 14.). '전두환 회고록' 민사 항소심도 왜곡·손해배상 인정. KBS.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55545

김지현 (2018). 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 분석 연구: 신문기사분석을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9(4), 219-236.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219

김진묵 (2019). 포털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한 국가 간 관계 변화 추이 연구: 체코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159-178.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159

대통령 비서실 (2004. 5. 18.). 5·18민주화운동 제24주년 기념사.
출처: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2046255

류춘렬 (2015). 언론의 기능과 이념 대결: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2), 231-254.

박경표 (2021). 5·18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하는 경향신문과 중앙일보의 만평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6), 466-479. http://doi.org/10.5392/JKCA.2021.21.06.466

박선희 (2002). 언론의 정치적 현실구성에 대한 담론분석: 5.18 특별법 제정에 관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의 사설을 중심으로. 정치정보연구, 5(1), 209-248.

박진우 (2022). 대학신문에 나타난 '5·18'의 보도 형태 연구: 학원자율화 조치 이전 시기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22(1), 5-44. https://doi.org/10.62082/JDHR.2022.03.22.1.5

빅카인즈 (2024). 빅카인즈 소개. 출처: 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

심영의 (2020). 역사적 진실과 자기기만 사이의 글쓰기-전두환 회고록의 경우. 문화와융합, 42(12), 511-534.

양혜승 (2020). 40년이 흐른 지금, 언론은 5·18을 어떻게 소환하는가?: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조선일보, 한겨레, 광주일보 기사 분석.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24(2), 4-28. https://doi.org/10.47020/JLC.2020.05.24.2.4

엄상빈 (2001).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관한 포토저널리즘 연구: 조선, 동아, 한국, 중앙일보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대학원 사진학과 포토저널리즘전공.

유연재 (2023. 5. 9.). 문재인 전 대통령 17일 5·18묘지 참배한다. 광주일보. 출처: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83631800752168006

이경민 (2019). 신문기사의 난민 키워드 변화 경향 연구: '빅카인즈' 신문기사 제목 활용.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 3, 99-114. https://doi.org/10.22957/mses.3..201902.99

이긍희 (2017).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경기 판단: 빅카인즈 뉴스 경기지수의 개발. 통계연구, 22(2), 67-94. https://doi.org/10.22886/jkos.2017.22.2.67

이세원 (2021).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인문사회21, 12(1), 2941-2954.

이수상 (2017a). 신문기사에 나타난 인공지능 담론에 대한 주제범주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4), 21-47.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1

이수상 (2017b). 신문기사에 나타난 경주지진 사건의 사회적 이슈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2), 53-72.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53

이정락, 정재훈, 유호웅, 이윤경, 김지인 (2022). 빅데이터와 텍스트네트워크 분석. 경북: 영남대학교출판부.

이현지, 변윤관, 장석진, 최성종, 오승희, 이용태 (2019).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문자 뉴스 게재 경향 분석. 방송공학회논문지, 24(5), 726-734. https://doi.org/10.5909/JBE.2019.24.5.726

임선화 (2018). 교과서 속의 5·18 광주민중항쟁: 2014년 개정 교과서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8(2), 53-78.

조문희 (2020. 5. 18.). '광주의 5월' 제대로 담지 못한 기사, 40년 만에 바로잡습니다. 경향신문. 출처: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5180600015#c2b

조찬식 (2012).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공공도서관의 홍보에 관한 연구: 은평구립도서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1), 223-240. https://doi.org/10.4275/KSLIS.2012.46.1.223

최영태 (2015a). 5·18항쟁의 명칭문제: '광주'와 '민중'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인권, 15(3), 113-148. https://doi.org/G704-001616.2015.15.3.006

최영태 (2015b). 5·18 민주항쟁과 김대중. 역사학연구, 57, 185-211.

최은정, 유경화, 황옥자, 박의경, 김용철 (2022) 언론사의 성향과 5·18 담론의 변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를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65(3), 5-40.

https://doi.org/10.31930/JAS.2022.06.65.3.5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13. 5. 29.).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기도와 언론노동자의 대응. 출처: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1522
한승희 (2018). 뉴스 빅데이터를 이용한 우리나라 언론의 기록관리 분야 보도 특성 분석: 1999~2018 뉴스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5(3), 41-75.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041
한승희 (2019). 도서관에 대한 언론 보도 경향: 1990~2018 뉴스 빅데이터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6(3), 7-36. https://doi.org/10.3743/KOSIM.2019.36.3.007
허현주 (2002).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신문사진 연구: 1980~2000 게재된 사진을 중심으로. AURA, 9, 100-109.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Jul 20. 2023). Human Rights Documentary Heritage 1980 Archives for the May 18th Democratic Uprising against Military Regime, in Gwangju, Republic of Korea. Available: https://www.unesco.org/en/memory-world/human-rights-documentary-heritage-1980-archives-may-18th-democratic-uprising-against-military-regime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BIG KINDS (2024). Introduction to BIG KINDS. Available: https://www.bigkinds.or.kr/v2/intro/index.do
Cho, Chan-Sik (2012). A study on the public relations of public libraries through newspaper article analysis: the case of eunpyeong public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46(1), 223-240. https://doi.org/10.4275/KSLIS.2012.46.1.223
Choi, Eun-Jung, Yu, Kyung-Ha, Hwang, Ok-Ja, Park, Eui-Kyung, & Kim, Yong-Cheol (2022). Press ideology and changes in 5·18 discourse: Analysis of editorials from Chosun, Dong-A, Kyunghyang and Hankyoreh.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65(3), 5-40. https://doi.org/10.31930/JAS.2022.06.65.3.5
Choi, Young-Tae (2015a). On the name of the 5.18 uprising: revolve around 'Gwangju' and 'Minjung'.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5(3), 113-148. https://doi.org/G704-001616.2015.15.3.006
Choi, Young-Tae (2015b). The may 18th gwangju democratic uprising and kim dae jung. Chonnam Historical Review, 57, 185-21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23. September 16). 5.18 Democratic Movement Records.

Available: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MemHeritage/MemHeritage_09.jsp&page&pageNo=5_4_2_0

Han, Seung-Hee (2018). An analysis of news report characteristics on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for the press in korea: based on 1999~2018 news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5(3), 41-75. https://doi.org/10.3743/KOSIM.2018.35.3.041

Han, Seung-Hee (2019) An analysis of news trends for libraries in korea: based on 1990~2018 news big dat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6(3), 7-36. https://doi.org/10.3743/KOSIM.2019.36.3.007

Huh, Hyun-Joo (2002). A study on the contents of the newspaper photographs for 5·18 gwangju democritization movement from 1980 to 2000. AURA, 9, 100-109.

Im, Seon-hwa (2018). Gwang-ju uprising in textbook: about 2014 textbook version. Journal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18(2), 53-78.

Jo, Moon-Hee (2020. May 18). An Article that Failed to Properly Report 'May in Gwangju' Corrects it in 40 years. The Kyunghyang Shinmun. Available: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005180600015#c2b

Kim, Jung-dae (2022, September 14). The 'Memoir of Jeon Doo-hwan' Civil Appeal Court also admitted to distortion and compensation for damages. KBS. Available: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555545

Kim, Dae-Won (2006). A Study on News Coverage of 'May 18 Democratic Movement' and Regionalism: Focused on those of its 5th, 15th and 25th Anniversaries.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Kim, In-Jeong (2019. February 8). Liberty Korea Party's 5.18 Absurdity Scandal 1 - Ji Man-won Pushes ahead with 5.18 Public Hearing. Munhwa Broadcasting Coporation. Available: https://kjmbc.co.kr/article/IlKl07rkJujIK

Kim, Ji-Hyun (2018). An analysis of the social image of library: focused on the analysis of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4), 219-236. https://doi.org/10.16981/kliss.49.4.201812.219

Kim, Jin-mook (2019). A study on the change of relation between countries through analysis of portal news articles: focusing on the czech republic.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2), 159-178. https://doi.org/10.4275/KSLIS.2019.53.2.159

Kim, Mi-Young (2021). The trend of Korean news reports related to okinawa: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bigkinds database 1994 to 2020. The Japanese Modern Association of Korea,

74, 299-327. https://doi.org/10.16979/jmak..74.202111.299

Kim, Seong-deok, Ahn, Yu-ri, & Park, Ji-Hong (2021). A social network analysis of legislators' activities on COVID-19 in the national assembly: based on news articl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5(2), 91-110. https://doi.org/10.4275/KSLIS.2021.55.2.091

Kim, Seong-Hee (2021. 5. 17.). [41st Anniversary of the May 18 Democratic Movement] What Kind of Presidential Message did You Recognize at the May 18 Ceremony?. Mudeung Ilbo, Available: http://m.mdilbo.com/detail/NezemK/647342

Korea Labour & Society Institue (2013. May 29). Lee Myung Bak Government Press Control Prayer and Media Workers' Response. Available: http://klsi.org/bbs/board.php?bo_table=B07&wr_id=1522

Lee, Geung-Hee (2017). Business cycle indicator using news big data: compilation of the big kinds news business index. Journal of Korean official statistics, 22(2), 67-94. https://doi.org/10.22886/jkos.2017.22.2.67

Lee, Hyun-Ji, Byun, Yoon-Kwan, Chang, Sek-Chin, Choia, Seong-Jong, Oh, Seung-Hee, & Lee, Yong-Tae (2019). A big data analysis of the news trends on wireless emergency alert service. Journal of broadcast engineering, 24(5), 726-734. https://doi.org/10.5909/JBE.2019.24.5.726

Lee, Jeong-Rag, Jung, Jae-Hoon, Yoo, Ho-Woong, Lee, Yun-Kyoung, & Kim, Ji-In (2022). Big Data and Network Text Analysis. Gyeongbuk: Yeungnam University Press.

Lee, Kyung-Min (2019). A study on the changing trends of refugee keywords in newspaper: using big cain's newspaper title.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3, 99-114. https://doi.org/10.22957/mses.3..201902.99

Lee, Se-Won (2021). Analysis of children's lives in the era of the Corona-19 pandemic using bigkind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2941-2954.

Lee, Soo-Sang (2017a). Analysis of subject category on artificial intelligence discourse in newspaper articl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4), 21-47. https://doi.org/10.16981/kliss.48.4.201712.21

Lee, Soo-Sang (2017b). Analysis of social issues of the newspaper articles on gyeongju earthquak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2), 53-72. https://doi.org/10.16981/kliss.48.2.201706.53

Office of the President (2004. May 18). The 24th Anniversary Speech of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Available: https://archives.knowhow.or.kr/m/record/all/view/2046255

Om, Sang-Bin (2001). The Photojournalism Study on the 5・18 Kwangju Democratization Movement: focused on Chosun, Dong-A, Hankook, Jungang Ilbo. Master's thesis, Sangmyung University.

Park, Jin-Woo (2022). A study on the reports of "May 18" in university newspapers: focusing on the period before university autonomy measures. 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22(1), 5-44. https://doi.org/10.62082/JDHR.2022.03.22.1.5

Park, Kyung-Pyo (2021). Analysis of the manpyeong of the kyunghyang shinmun and joongang ilbo based on the may 18 democratic uprising.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1(6), 466-479. http://doi.org/10.5392/JKCA.2021.21.06.466

Park, Sun-Hee (2002). A discourse analysis o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reality in the media: focusing on the editorial of the Dong-a Ilbo and the Chosun Ilbo regarding the legislation of the special act on the may 18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 communication, 5(1), 209-248.

Ryu, Choon-Ryul (2015). The function of news media and ideological confrontation: a neo-functionalist approach. Kookmin Social Science Review, 27(2), 231-254.

Shim, Young-Eui (2020). Autobiographical writing between historical truth and self-deception. Culture and Convergence, 76, 511-534.

Yang, Hye-Seung (2020). How is 5・18 recalled after 40 years?: Analysis of Chosun-Ilbo, Hankyoreh, Gwangju-Ilbo News Articles Using Text Mining Techniques. Locality & Communication, 24(2), 4-28. https://doi.org/10.47020/JLC.2020.05.24.2.4

Yoo, Yeon-Jae (2023.5.9.). Former President Moon Jae In will visit the May 18 Cemetery on the 17th. Gwangju Ilbo. Available: http://m.kwangju.co.kr/article.php?aid=1683631800752168006